



소리주보

■ 발행 : 천주교부산교구 ■ 편집 : 전산홍보국 629-8750 (48316)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427번길 39 ■ jubo@catb.kr ■ 인쇄 : 주보인쇄사(809-2078-9)



사진 : 정봉채 라이문도

입 당 송 이사 48,20 참조

환호 소리 울리며 이 일을 알리고 전하여라. 땅끝까지 퍼뜨려라. 주님이 당신 백성을 구원하셨다. 알렐루야.

제 1 독 서 사도행전 15,1-2.22-29

화 답 송 시편 67(66),2-3.5.6과 8 (◎ 4 참조)

◎ 하느님,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1. 하느님은 자비를 베푸시고 저희에게 복을 내리소서. 당신 얼굴을 저희에게 비추소서. 당신의 길을 세상이 알고, 당신의 구원을 만민이 알게 하소서. ◎
2. 당신이 민족들을 올바로 심판하시고, 세상의 겨레들을 이끄시니, 겨레들이 기뻐하고 환호하리이다. ◎
3. 하느님,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하느님은 우리

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세상 끝 모든 곳이 그분을 경외하리라. ◎

제 2 독 서 요한 묵시록 21,10-14.22-23

복 음 환 호 송 요한 14,23 참조

◎ 알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도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가서 그와 함께 살리라. ◎

복 음 요한 14,23ㄴ-29

영 성 체 송 요한 14,15-16 참조

주님이 말씀하신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라. 내가 아버지께 청하면, 아버지는 다른 보호자를 보내시어,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알렐루야.

5월 교황님의 기도 지향 (젊은이들의 신앙)

충만한 삶을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젊은이들이 성모님의 생애에서 경청하는 법, 깊은 식별, 신앙이 싹틔운 용기, 헌신적인 봉사를 배우도록 기도합니다.



“저희를 버려두지 마소서.”

저희를 버려두지 마소서.

지난 2020년 3월 27일 저녁,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텅 빈 베드로 광장에서 홀로 기도하셨다. 코로나 19로 고통받고 있는 인류와 이에 맞서는 모든 이들을 위한 기도였다. 이어서 교황님은 모든 성사가 멈춘 세계 교회를 향해서 성체강복을 거행하시고, 전대사를 베푸셨다.

희망의 노래.

같은 해 4월, 한 테너가 노쇠한 몸을 이끌고 아무도 없는 밀라노 대성당, 제대 뒤편에 섰다. 그의 전성기 노래를 부르며 코로나19로 고통받는 모든 이들에게 희망을 전한다. 안드레아 보첼리다. 그는 이어서 성모님의 도움을 청하며 “아베 마리아”를 봉헌한다. 그는 앞을 볼 수 없다. 그러나 천천히 그 몸을 이끌고 성당 광장에 섰다. 역시 아무

도 없는 텅 빈 광장이다.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노래한다. 화면은 모든 것이 멈춘 유럽의 텅 빈 거리를 비춘다.

보호자 성령.

오늘 주님은 제자들에게 보호자 성령 하느님을 알려 주신다. 제자들을 알지 못하지만, 주님은 알고 계신다. 당신의 빈자리를 채워주실 분이다. 주님은 “평화”를 약속하신다. 주님의 평화는 세상이 경험하지 못한 평화다. 우리도 그 평화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 다만 신앙의 길에서 느낄 뿐이다.

코로나19 이후 우리 신앙, 우리 삶 모두가 불확실하다. 성사가 멈췄지만 아무렇지도 않은 일상을 지냈고, 종식될 기미가 없어 보인 감염병은 이제 우리 일상이 되었다. 확실한 그 무엇이 없는 코로나 이

후의 시간 앞에 주님은 보호자 성령 하느님을 깨닫게 하신다. 늘 계신 그분을 일깨워주신다. 불확실한 현실에 두려워하지 않도록 보호자 성령 하느님의 현존을 전해 주신다. 그 깨달음은 우리를 희망으로 인도한다. 불안하지만 희망을 향해서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다.

“하느님의 영광이
그곳에
빛이 되어 주시고
어린양이
그곳의
등불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한 종민
야누아리오 신부
부산가톨릭대학교



캘리그래피. 김태자 베르베투아 (양산성당)

cpbc 부산가톨릭평화방송

부산 FM 울산 FM 녹산 FM
101.1MHz 94.3 MHz 101.5 MHz

오늘의 강론 월~토 06:50
(제) 16:50

5.23(월)~24(화)
한종민 신부(부산가톨릭대학교)

5.25(수)~28(토)
이상경 신부(우동성당 보좌)

사랑이 있는 세상

월~금 11:00~12:00

진행 : 김다정 데레사

5.25(수) <하늘타리> 시노달리타스 5

출연 : 부산교구 청년연합회

세실리아의 달콤한 클래식

5.29(일) 21:00~22:00

진행 : 김유진 세실리아

<시대의 흐름을 따라

감상해보는 성모님의 음악들>

잠깐의 배려를 내어주세요.

몇 년 전, 지금처럼 햇살이 따사롭던 봄날 저는 돌쟁이 아이와 함께 외출을 시도했습니다. 유아차에 아이를 태우고 잠시 산책을 나갔다가 차를 한잔 마시려던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10분도 되기 전에 외출을 후회하게 되었습니다. 유아차가 오를 수 없는 수많은 턱과 계단 그리고 인도 위 장애물들로 인해 차도를 위험하게 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등에 식은땀이 흐르고 겨우 지하철역까지 간 저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몇 번이나 뒤로 밀렸습니다. 자리를 차지하는 유아차를 불편한 시선으로 쳐다보는 사람, 슬쩍 앞으로 끼어드는 사람, 심지어 왜 이렇게 커다란 유아차를 들고나왔냐고 나무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약자를 보호하고 배려하기 위해 설치된 엘리베이터를 약자는 눈치 보며 사용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장애인 이동권과 관련된 시위가

20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하철을 이용하려다가 추락한 장애인이 숨진 사건 이후로 20년이 흘렀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편하게 이용하는 수많은 것들은 장애인의 시위를 통해 얻어졌지만, 우리는 주위에서 장애인을 자주 볼 수 없습니다. 장애인의 수가 적거나, 그들이 외출이 불필요해서가 아닙니다. 제가 유아차와 함께 외출했을 때와 같이 그들이 이동하는 데 수많은 제약이 있기 때문입니다. 장애인 시위에 불편하다는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에게 대한 기사와 글을 보면서 참으로 슬프고 답답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들의 이동권 보장 요구는 생존과 관련된 아주 필사적이고 처절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출퇴근 시간에 타인의 불편함을 야기하면서까지 지하철을 지연시키는 이유는 그래야만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장애는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후

천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약 9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나와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는 인식, 장애를 가진 이들에 대한 도움은 불쌍해서가 아니라 불편하지 않은 이가 당연히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나눠주어야 한다는 인식이 필요할 때입니다. 장애를 가진 이들도 은행과 병원 업무를 봐야 할 일이 있고, 계절을 느끼려 외출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동에 배려가 필요하다면 사회는 그리고 사회의 구성원인 우리는 그러한 배려를 흔쾌히 내어주어야 할 것입니다.

노동사목에서의 일이, 주님의 가르침과 같이 보다 낮은 곳에서 가난한 이들과 함께하는 것이어서 참으로 좋습니다. 이러한 배려가 보다 다양해지고 평범한 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하면 더욱 좋겠습니다.

■ 김도아 프란치스카
장림성당 · 노동사목 행정실장



공동의 집 들보기

Ⅲ. 현대 인간 중심주의의 위기와 영향

117. 인간이 자연에 끼친 해악과 인간의 결정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데에 태만한 것은 자연의 구조 안에 새겨진 메시지에 대한 무관심을 뚜렷하게 보여 줄 뿐입니다. 예를 들어, 현실에서 가난한 이, 인간 배아, 장애인이 지닌 가치를 인식하지 못할 때 자연의 울부짖음 자체에도 귀를 기울이기가 어려워집니다.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119. 피조물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인간이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을 여는 사회적 측면은 물론, 하느님하신 '당신'께 마음을 여는 초월적 측면을 약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사실 인간과 환경의 관계는 인간들 사이의 관계와 하느님과 인간의 관계와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찬미받으소서』 115항~121항 발췌 교회 문헌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찬미받으소서』 115항~121항 영상 보기

낭독 : 가톨릭서예인회 정창환 안토니오



피조물 보호를 위한 50가지 손쉬운 방법

외식할 경우에, 못먹을 반찬은 미리
돌려주고 음식은 남기지 않아요.





2021
2023

시노드 정신을 살아가는
교회를 위하여
친교 | 참여 | 사명

지난 두 달여 동안 38개의 교구 본당 청년 공동체의 청년 270명이 시노드 정신을 살아가는 교회의 일원으로서 친교, 참여, 사명의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 **여정의 동반자**라는 주제로 ‘시노드 경청과 대화 모임’을 가졌습니다. 모임을 통해 들을 수 있었던 청년들의 이야기를 나누어 드립니다.

1. 체험

(1) 전체 체험에서 가장 의미 있는 것은 무엇이었는지, 얻은 기쁨과 도전은 무엇이었습니까?
경청과 대화 과정에서 체험한 것은 무엇입니까?

- ☞ 다양한 생각을 나누는 체험이 되었다.(16개 공동체) : “가장 의미 있는 것은 함께 할 수 있고 서로의 신앙적인 생각을 나눌 수 있는 것이었다.” “서로의 다양한 생각을 들으면서 이해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 ☞ 공동체의 일치를 체험할 수 있었다.(7개 공동체) : “각각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결론으로 모이는 게 인상 깊었다.”
- ☞ 성령의 이끄심을 느낄 수 있었다.(4개 공동체) : “미처 알지 못했지만, 주님의 사랑이 나를 이곳으로 이끄셨다.”

(2) 특별히 의미 있거나, 놀랍거나 뜻밖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새롭게 느낀 관점은 무엇입니까?
어떤 관점이 강한 울림을 주었습니까?

- ☞ 청년들의 의지와 잠재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10개 공동체) : “생각을 나누며 모든 청년들이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음을 확인했다.”
- ☞ 우리는 이미 함께 걷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8개 공동체) : “청년회는 그저 매주 미사를 열심히 준비했을 뿐인데, 뭔가 모를 위로를 서로에게서 주고 받았다.”
- ☞ 냉담 중이거나 혹은 소외된 이들의 속사정을 이해할 수 있었다.(4개 공동체) : “냉담 청년들의 냉담의 이유를 들으며, 우리가 행하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부당과 고통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3) 감동을 준 특별한 이야기나 경험이 있었습니까?
그 내용과 이유는 무엇입니까?

- ☞ 하느님께서 이끄시고 불러주시심을 체험할 수 있었다.(10개 공동체) : “내가 변화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으며, 언제 어디서나 성령께서는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셨다.”
- ☞ 교회와 교회 공동체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깊이 고민해 볼 수 있었다.(6개 공동체) : “시각장애인 목욕 봉사를 하면서 공동체가 함께 봉사하는 신앙생활의 기쁨을 깨달았다.”
- ☞ 신앙생활이 나의 삶의 원동력이 되고 있음을 느꼈다.(5개 공동체) : “신앙이 나를 회복시켜주시심을 느낀다.”

2. 현실과 미래 전망

(1) 시노달리타스와 관련하여 우리 교회의 현실에 치유와 회개가 필요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이와 관련하여 성령께서 공동체에 어떤 영감을 주셨습니까?

- ☞ 소외된 이들과 함께 걸어가야 한다.(18개 공동체) : “예수님께서 병에 걸린 이들, 소외된 이들을 먼저 찾아가 병을 고쳐주시고 사랑을 전하셨다.” “청년회가 주체가 되어 사회에서 소외된 이들이나, 믿음이 부족하여 부정적인 이들까지 모두 함께 걸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 ☞ 가톨릭 신앙 본연의 의미를 회복해야 한다.(8개 공동체) : “조금 더 간절하게 조금 더 진실 되어 주님을 믿을 필요가 있다.” “우리 모두 답을 알고 있다. 2천 년 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당신 목숨을 희생한 그 사랑의 마음을 이웃들에게 전하는 방법 외엔 없다고 생각한다.”

(2) 참가자들은 교회에 대해 어떤 꿈과 바람과 열망을 표현하였습니까?

- ☞ 청년 공동체의 활기가 있는 교회(12개 공동체) : “노래 부르고 복사도 서고 하면서 다시 활기가 가득 찼으면 하는 바람을 나누었다.” “청년들이 교회 안에서 용감하게 다양한 시도를 해볼 수 있도록 많은 지지와 응원이 필요하다.”
- ☞ 일치가 있는 교회(7개 공동체) :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함께 신앙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희망하였고, 이를 위해 시노드 정신을 따라 모든 신자들이 함께 걷기를 열망하였다.”
- ☞ 함께 걷는 길을 제시해 주는 교회(6개 공동체) : “‘함께 걷기’ 위해 교회가 있어야 할 자리에 변치 않고 계속 있어 주며, 그 길을 알려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 ☞ 시대와 함께 걷는 교회(5개 공동체) : “현실적 상황에서 오는 마찰과 괴리감을 좁히기 위해 노력해주면 좋겠다.” “성당 안에서 우리 얘기만 주를 이룰 것이 아니라 많은 사회와 환경문제로 시야를 넓혔으면 좋겠다.”

3. '시노드 대화와 경청 모임'을 경험한 청년들의 소감

- ☞ “작은 밑일이 여러 열매를 맺듯 풍성한 청년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장진원 프란치스코-남천지구장) “혼자라고 느꼈던 순간에도, 주님께서, 성령이, 그리고 공동체가 함께 이 길을 가고있음을 체험했습니다.” (김진실 효주아네스-가야지구장) “성령께서 평소에는 함께 모이지 못했던 청년들을 불러 모아 주신 듯하여 뜻깊었습니다.” (김성우 안토니오-우동지구장) “과거의 좋았던 추억만을 되새기는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최준혁 사도요한-양산지구장) “소통과 경청은 서로 함께한다는 것이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은혜 아네스-아음지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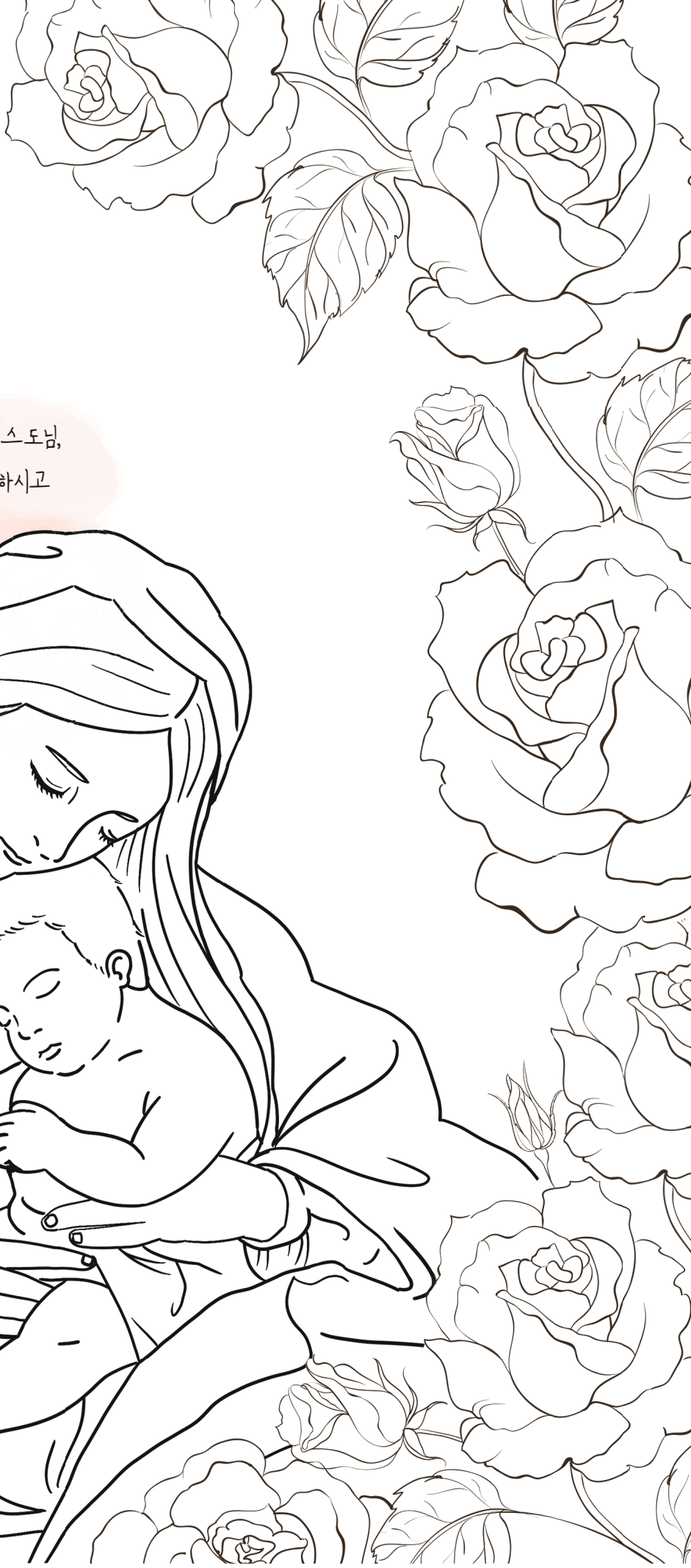


지면에 담지 못한 많은 청년들의 이야기들을 열고 나누고자 청소년사목국에서는 지난 5월 20일(금) 20시 <청년 대토론회 - 여정의 동반자>를 마련했습니다. 유튜브 채널 부산교구청소년사목국 OnFaith 를 통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색칠하며 묵상하는 성모성월



저희를 하느님 아버지께 이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님의 어머니 동정 마리아를 저희 어머니가 되게 하시고
저희의 친구자로 세우셨나이다.

비오니,

성모 마리아의 전구를 들으시어



저희가 주님께 간구하는

모든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소서.

성경구절
정하여
암송하기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남기고 간다.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요한 14,27)

[나만의 성구]

위의 복음 구절을 따라 쓰거나, 나의 마음에 와닿은 나만의 성구를 적고 암송해 보십시오.

* 1년 간 (2021.11.28.~2022.11.20.) 작성 후 모아서 보내주시는 분들께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

절취선

우크라이나 난민 돕기
2차 헌금에 참여해
주신 모든 신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부활 제2주일(하느님의 자비 주일)
에 모아 주신 2차 헌금 총 210,902,510
원은 주교회의를 통해 교황청으로 전달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지만 더욱 힘든 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활 제6주일 젊은이 주보 <Youth Week>

부산교구 청소년사목국



‘가톨릭신자앱’의 이름을 지어주세요!

한국 천주교회는 기도 생활, 성지 방문 기록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
‘가톨릭신자앱’(가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사무실을 방문하셔야만
했던 일부 업무도 앱으로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
습니다. (가톨릭페이 기능을 통해 앱으로 헌금과
교무금을 봉헌하고, 미사 지향 신청도 가능!!)

▶ 상금 : 30만원

▶ 공모기간
: 5.15(일)~6.5(일)

▶ 참가방법
: 굿뉴스 홈페이지 홍보마당
- 이벤트 게시판에 댓글로 등록



바로가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랑의 자선금 모금 내역

사랑의 자선금을 기부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5월 9일~5월 15일] 소계 : 240,000원 모금 누계 : 943,439,334원

박희출 100,000 박정자 50,000 정해정 3,000
박재남 12,000 박현웅 10,000 박현호 65,000

사용 누계 : 751,667,700원

※ 지난 모금 내역 및 구체적인 사용 내역은 교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잔액 : 191,771,634원

※ 코로나 극복을 위한 기부금 모금에 동참을 원하는 신자분들은 아래
계좌로 참여해 주십시오. 입금 시 성명(본당) 기록. 예) 홍길동(남천)

<입금 계좌> 농협 301-0267-8167-11 예금주 : 천주교부산교구



선종사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2013.5.22.

박태산(요아킴) 신부님

말씀과 찬양 페스티벌



일시/ 5월 30일(월) 10:00~18:00

장소/ 양산성당 * 파견미사 : 장재봉 신부

출연진 : 장재봉 신부, 윤원진 신부, 김완식 선교사,
고영민, 손현희, 김정식, 송봉섭, 신상욱

문의 : (055)367-2232 성모올타리공동체

<p>서울공예사 목주반지 전문 금방 다양한 예물, 커플링, 패션제품 범일동 역 12번 출구 중앙 귀금속 115호 (주.야) 631-5006, 631-5007 황 근 영 (바울라)</p>	<p>조은 모바일 크레인 건설현장의 꽃 이동식 타워크레인 (일대/월대) 장비임대 및 현장담사(상담환영) 010-3831-2403 심 현 진 (프란치스코)</p>	<p>성모치과 임플란트, 심미보철, 보험틀니 원장. 송 치 원 (라우렌시오) 633-8228, 634-8228 지하철 1호선 범일동역 2번 출구 80m</p>	<p>인산죽염 부산지사(동래) 대 표. 김기룡(야고버) 죽염, 유황오리진액, 호두액, 진환경 557-5553 동래대동병원 맞은편, 대리점 취급점 모집</p>	<p>성신익스프레스 (영구크린 부산지점) 포장이사 전문업체 이사와 청소를 한번에 해결해드립니다 242-4222, 1522-4324 www.ss0924.com</p>
<p>속편한내과, 영상의학과 간, 소화기병 전문 진료, 종합검진, 보형공단검진 진단방사선 전문검사(초음파, 컴퓨터 단층 촬영) · 소화기내과 원장 : 김주호(스테파노), 김진도(안드레아), 허정호(루카), 조성락, 한서룡, 이정현, 장형하, 정재원 · 진단방사선과 원장 : 임성연 554-1088 동래시외버스터미널 옆</p>	<p>김병호정형외과 척추, 관절/통증, 재활/도수물리/물리치료 원장(정형외과 전문의). 김 병 호 (루카) 752-0020 수영구 수영로581, 광안역 4번출구앞(4/5층)</p>	<p>SNU서울비뇨의학과 24시간 요로결석 치료 / 전립선, 요실금 서문 롯데백화점 정문 옆 (도보1분) 714-1725 서울대 출신 원장. 박 정 민 (가브리엘)</p>	<p>온정성 치과의원 구강외과 &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자기치아 살리기, 고난이도 임플란트 원장. 임 혜 연 (막달레나) 지하철 수영역 2번출구 50m직진 다이소 맞은편 3층 932-2828</p>	<p>동진양산 우산, 양산, 담배품 및 기념품 도매 범일동 남문시장 1층 (대로번) 646-9730 010-3593-1188 현일석(안셀모), 이경옥(마스칼리나)</p>

교 구

성소자를 위한 기도 모임(울산)

· 5.27(금) 13:30 묵주기도, 14:00 미사
· 월평성당 / 문의 : 629-8760(성소국)

기관·제 단체·위원회

부산 미바화 후원미사

· 5.27(금) 10:30 / 세계오지선교회 차량지원
· 남천성당 / 문의 : 623-4528(사무실)

ME부산협의회 383차 ME주말

· 6.24(금) 19:00~26(일) 17:30 · 마리아 피정센터
대상 : 부부 (결혼 3년 이상, 종교 무관), 성직자, 수도자 / 문의 : 465-1010, 010-4130-4263

성령쇄신 봉사회 (055)382-9465 영성의집

-수요치유미사
· 5.25(수) 13:00~15:00
-금요일미사(성모의밤)
· 5.27(금) 20:00~22:30
-젊은이 기도회
부산 : 5.23(월) 19:30 전포성당
울산 : 6.1(수) 20:00 대리구 별관
-468차 교구묵상회(일반)
· 6.24(금) 18:30~26(일) 17:30
회비 : 18만원(교재비 5천원 별도)

성령쇄신 봉사회 (052)244-7014 울산 영성의집

-목요 밤미사
· 5.26(목) 19:50~21:30

부산가톨릭평화방송 직원 구함

모집부문 : 방송기술(무선설비(산업)기사, 무선설비기능사, 방송통신(산업)기사, 방송통신기능사 중 1개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 신입 및 경력
접수 : 5.27(금) 18:00까지, 이메일 접수만 가능 (bscpbc@outlook.com) / 문의 : 600-8800

로사리오의집 문의 : 010-7155-3498

-하느님의 자비신심 월피정(강의, 미사)
· 매월 2주 토요일 10:00~16:00(중식 제공)
6.11(토), 7.9(토), 8.13(토)
-파우스티나 성녀와 함께하는 미사
· 매주 금요일 13:30~15:30
미사, 자비의 시간 오후 3시 기도

उन전기사사도회 회원 모집

대상 : 부산 시내 개인택시 사업자
문의 : 010-2889-9006, 010-7750-4330

부산여성그레고리오 단원 모집

연습 : 매주 월요일 19:00 신학교정 내 음악원
대상 : 그레고리오성가에 관심과 배움에 뜻을 함께 하는 분들 / 문의 : 010-3923-1692

성도미니코선교수녀회 피정

성경완독 : 6.10(금)~18(토)
문의 : 010-3340-0201(형성 도미니코피정의집)

예수성심전교수녀회 성소자 피정

· 6.4(토)~6(일) · 부산 장전동 본원
주제 : 수도생활과 마음의 영성
대상 : 35세 이하 미혼여성
문의 : 010-3241-3107

제주 성 이시돌 자연 순례

· 5.30~6.1, 6.4~6, 6.13~15, 7.3~5, 7.8~10, 7.23~25, 7.31~8.2, 8.6~9
천혜의 아름다움을 지닌 섬 제주도에 사는 평화로운 '섬'과 재충전의 시간
대상 : 개인, 가족, 일행, 본당단체 구반장
접수 : (02)773-1455 / (064)796-4182

고영민 안드레아와 함께하는 치유피정(무료)

· 6.4(토) 15:00~5(일) 15:00
· 청주교구 초정성령회관
강사 : 맹진학 신부, 김완식 요셉
문의 : 010-4400-1344, (043)213-9103
버스운행 : 조치원역 앞 신한은행 14:00, 청주고속터미널 앞 시내버스정류장 14:20

강우일 주교님과 함께 견고 듣는 제주이야기

· 6.17~19, 9.23~25, 10.18~20, 11.18~20, 12.5~7
· 제주 성이시돌 피정의집 / 내용 : 성지순례, 말씀여행(예수님알고사랑하기), 참여프로그램
대상 : 개인, 단체 누구나(구역반장, 단체는 맞춤피정 가능) / 문의 : 010-5100-3845(한국통합사목센터)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성가정임양원

국내입양상담 : (02)764-4741~3
www.holyfca.or.kr

교육·모집·기타

성바로수도회 말씀학교특강

· 5.25(수) 10:00~12:30 (미사 포함)
· 가톨릭센터 3층 / 회비 없음
내용 : 아름다운동행(마리아의 사도성)
강사 : 양은철 신부 / 문의 : 010-9333-6260

예수성심전교수도회 후원회 미사

· 5.27(금) 15:00 · 대연성당(성전)
* 신청 필수 / 문의 : 010-6311-8071

심리상담 강좌 '오이디푸스'

· 5.31~6.30 매주 화, 목 10:00~12:00(10회)
내용 : 인생전환기 오이디푸스 시기를 통한 생의 전반적 이해와 대안
문의 : 622-2431 (살레시오영성의집, 남천동)

수도회 성소 모임 및 피정	일 시	장 소	문 의
한국외방선교회	원하는 시간	원하는 장소	010-8715-2846
티없으신마리아성심수녀회	5.29(일) 13:30	본원	010-2835-4858

부산가톨릭대학교
CATHOLIC UNIVERSITY OF PUSAN
기본이 충실한 대학

부산가톨릭대학교 일반대학원 신학과
평신도-수도자를 위한 신학 석사과정 후기 모집
원서접수 : 5.30(월)~6.10(금) 17:00 (온라인 접수)
면접고사 : 6.23(목) 예정
모집요강 : 대학원 홈페이지 참고
문의 : 519-0441~2 graduate.cup.ac.kr

부산시병원간호사회, 부산성모병원
감염관리실에 감사패 전달
부산성모병원 감염관리실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간호의 사명을 실천하고 간호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부산시병원간호사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감염병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는 부산성모병원-
대표번호 : 051-933-7114

혼인미사(결혼식) 특화성당
토, 일, 공휴일 : 11, 13, 15, 17시
051.441.3500 catholicwedding.kr
스드메 특전 제공(2022.11.~)
부산가정성당
Matrimonium · AMOR · Familia

'옥에 티'를 찾습니다! 후보에서 오·탈자를 발견하시면 카카오톡 채널 '가톨릭부산', 이메일로 알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p>성분도치과병원 울리베따노성베네딕도수녀회 운영 752-9011,9022 010-2755-9011</p>	<p>김용기내과의원 [총무동 구. 김동수 내과] 갑상선·당뇨·고혈압·골다공증 원장 김용기(T. 아쿠나스) 전 부산의대 학장 외 내과전문의 8명 상담 및 예약 245-7100</p>	<p>독일보청기 동래교차로(수안동) 청력검사, 난청유형별맞춤처방, 정부지원 보조금상담, 교우특별할인, 즉석 A/S 방(아브라함) 송(아가다) 555-5777 동래구 총렬대로 229, 수안역 7번출구 앞 2층</p>	<p>한방화장품 상황미인 상황버섯 추출물 함유 / 교우 할인 천연한방특허 바디롤러 / 바디로션 기초화장품 / 기능성화장품 758-9115,010-8557-8153 www.soosul.com 신(프란치스코)</p>	<p>커넥트프랩 대연점 공단기 관리혁동서실 (마스터플랜 수학학원) 경성대부경대역 5번 출구 010-4475-3119 네이버 검색 : 커넥트프랩 대연점</p>
<p>길맥흥부외과 〈하지정맥류 중점클리닉〉 모카,고주파,레이저,보형수술 원장 박 동 욱 (안드레아) 754-9975~6 해운대 신세계백화점 건너편 선템임페리얼타워</p>	<p>동래 광안 참사랑요양병원 뇌졸중, 통증 재활 치료, 척추 손상 치매, 중풍, 간병 치료, 양·한방 협진 동래 : 553-0050 추홍수(야고보) 광안 : 751-1515 김명희(아네스)</p>	<p>바른성모안과 망막(황반변성, 당뇨망막증, 망막혈관폐쇄), 백내장 원장 최 베드로(한국광명학회 정회원) 242-0075 서구청 옆 바른병원 3층</p>	<p>우일촌 대연동 구)성남성당 since 1984 빈대떡 (이복식빈대떡) 전국택배 가능(진공포장) 한 협 (그레고리오) 010-9576-1476</p>	<p>내일N성형외과 최수종(루카) 전. 부산대학교병원 성형외과 과장 / 교수 논,코,윤곽,가슴,지방성형,보톡스,필러,레이저 상담 및 예약 231-8088 부산시 서구 보수대로 9(마린병원 2층) / 서구청 옆</p>